

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2년 연속 “韓 파트너”

“전후 가장 엄중·복잡한 안보환경 직면”…한·미·일 협력도 강조
북리 군사협력에 ‘심각 우려’…중군사활동엔 ‘최대의 전략적 도전’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특별히 주목했다.
◇독도 억지 기술·지도 지난해와 동일…韓협력 기술분량은 다소 줄어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기재했다.
방위백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한국과 안보 협력 관련 기술은 분량이 지난해보다 1쪽가량 적은 25쪽이었으나, 전반적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과



일본 '다케시마 표시' 어린이용 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15일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L가사키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천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사진은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삽입된 지도.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15일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L가사키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천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사진은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삽입된 지도.

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日안보에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

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변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이 칼럼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통상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 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동맹, 우방국 등과 협력·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과 군사적 연계 동향을 포함한 강한 우려를 갖고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 총리 방중에도 태평양서 미국 등과 최대규모 합동군사훈련

19개국 병력 3만5천명 3주간 진행
호주 밖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첫 훈련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호주군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미국 등 19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합동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군은 호주 내륙과 해안 등에서 지난 13일부터 ‘2025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호주 합동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등 19개국에서 3만5천명이 넘는 군 병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러졌다. 여기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올해 훈련의 특징은 호주 외에도 인근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진행된다.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이 호주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 훈련을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네 차례 훈련에서는 중국 정찰선이 호주 연안 근처까지 다가가 훈련을 감시한 바 있다.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은 ABC와 인터뷰에서 “중국군은 꾸준히 이 훈련을 정찰해 왔으며 올해 정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그들의 활동을 면밀히 정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앨버니지 총리의 중국 방문 중에 시작됐다. 앨버니지 총리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초청으로 지난 12일 중국을 찾았고, 18일까지 공식 방문한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 총리 등과 만나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주4일 출근하거나 회사 떠나거나”

세계 최대 커피 체인업체 스타벅스가 사무직원들의 필수 출근 일수를 ‘주 3일’에서 ‘주 4일’로 강화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들은 짐을 싸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주 4일 근무가 적용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사를 선택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현재 원격 근무 중인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도 12개월 이내에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이나 북미지역 거점인 캐나다 토론토로 주거지를 이전하도록 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월 원격 근무 중인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시애틀 또는 토론토로 옮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니콜 CEO는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백투 스타벅스’(Back to Starbucks) 구조조정 계

획을 실행하고 있다. 2월에는 본사 사무직원 1천100명을 감원했다.
니콜 CEO는 “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인간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서, 향후 구조조정 규모를 고려할 때 이것이 스타벅스에 맞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니콜 CEO는 스타벅스에 영입될 때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기로 시애틀 본사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회사 측은 니콜 CEO가 시애틀에도 사무실과 거주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일머니’ 사우디, 태양열·풍력에 11조원대 투자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업체 ACWA 파워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88억 달러(약 11조4천900억원)를 투자해 사우디에 15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절반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하겠다는 사

우디의 목표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FT는 평가했다.
이같은 목표는 석유에 의존해온 사우디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200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넷제로) 실현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소유한 ACWA 파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 전력 구매업체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우디 4개 지역에서 태양광(5개)과 풍력(2개)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ACWA 파워와 파트너사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2028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컨소시엄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자회사 아람코 파워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는 거의 모든 전력을 석유 및 가스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 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 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